

The Builder III

내 힘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데스티니를 의미한다. 데스티니가 없는 인생은 없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가 만드신 목적이 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 신앙의 힘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무하거나 공허해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다. 이것을 발견할 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빌더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을 재건할 수 있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이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가뭄이 있던 땅에 비를 내리기를 원하셨고, 갈멜산의 도전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엘리야를 통해 대지를 다시 살리는 비가 왔다. 또 한 명의 예는 '요나'이다. 요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심판받아 무너질 니느웨성을 주님 앞으로 오게하는 것이었다.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리고 심판받을 니느웨성을 회개 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예수님도 기도 하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생활은 '자신' 안에서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을 파고 또 파는데 더 괴로운 것이다. 그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기에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고행'만 있다. 기쁨이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적 신앙과 진짜 신앙은 다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일 보다 기쁜 일은 없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클레시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눈을 뜨는 것이다. 육의 눈이, 구원받은 속사람의 눈이 떠짐으로 서로 같은 곳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론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가 되어야 한다.

2.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과정

'빌더'는 세우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은 속성 자체가 '영적인 일'이다. 즉, '원리'가 있다는 말이다. 원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는 되는 법칙을 말한다. 원리는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란 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보는 눈을 말한다. 올라가 보니 무슨 모양인지 알게된다. 내 앞에 있는 미로의 벽도 올라가면 나갈 길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빌더'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하시는 과정을 두신다. 피해 갈 수 없다.

(1) 충돌의 과정

먼저 하나님은 내 뜻을 깨는 과정을 두신다. 여기서 내 뜻이 깨진다는 것은 잘못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두신다. 이때의 충돌은 잘못된 충돌이 아니다. 당연한 충돌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돌'을 소중히 여기신다. 아니,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기신다. 그래서 이 '충돌'은 좋은 것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다음 단계인 이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 충돌이 일어난다.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등,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 안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충돌이 되었다. 그들이 건강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충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은 '충돌'의 절정이 된 사건이다.

[사도행전 10:14-15] 14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15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베드로가 불순종한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의 충돌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율법의 전통위에 세워진 형식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충돌이 있었기에 그는 '고넬료' 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충돌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익숙한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충돌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 보이지 않았던 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결국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향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충돌이 일어날 때 '열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들어야 한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부서지는 과정

충돌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신다. 이전 것으로 새 일을 세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것을 부수신다. 여기서의 부서짐은 심판이 아니다. 깨지는 것이다. 내 한계를 보게 하신다.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하는 과정을 두신다. 부서짐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번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많은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옛 생각은 깨지기 시작한다. 보자기 환상부터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시작한다. 건축자 하나님의 지속적 '망치질'을 통해서 결국 금이 가고 부서진다.

복음도 마찬가지이다. 육의 겉사람이 결국 부서져야 거룩한 속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예언되었다.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망치질이 육의 겉사람 위에 있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마지막 망치질은 십자가 위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부서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속적 망치질은 건축자의 망치질이다. 그것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3) 연약한 나를 발견하다.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진 그 순간은 인간의 힘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연약함의 순간이다. 그때 두려워진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한다.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은 아담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정죄한다.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정죄함으로 나를 묶는다. 그리고 두렵게 한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은 언제나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능력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돌을 빵으로 바꾸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천한만국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건축자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겹세마네 위에서의 기도이셨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신다. 놀라운 순간이다.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연약함을 고백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심으로 고백된 연약함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연약함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들풀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신다.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율법이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래 여기게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중요하다 (달란트 비유).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안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3.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한다.

결국,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다.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 된 신분 안에서 나타난다. 죄로 연약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곳이 은총의 자리이다.

(1) 다윗의 장막의 회복

[사도행전 16: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안디옥 교회의 이방선교가 가능한 신학이 사도행전 16:16절에 정립된다. 충돌과 무너짐을 경험한 유대 공동체의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그 뜻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한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선포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어떤 영성위에 세워졌는지를 이해하자. 다윗의 장막(수막)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

수막은 '연약한 장막'이다. 바람 불면 쓰러지고, 사방이 영성하고 초라한 장막을 말한다. 그러나 초라한 장막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연약한 장막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장막이 되기 때문이다.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선교의 영성은 나오는 다른 뜻, 다른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플랫폼을 말한다. 쉽지 않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였다. 감추지 않았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을 구했다.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아름다움의 끝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진짜 고백이다.

“인간은 추합니다. 죄인 된 나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붙들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은총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다. 그 의미가 다윗의 장막 (수막)이다. “나는 이방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나에게 진짜 아름다움, 진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소서.”

(2) 느헤미야

[느헤미야 6:13-14]

13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빌더 느헤미야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원수들의 방해 앞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지만 오히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구한다.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